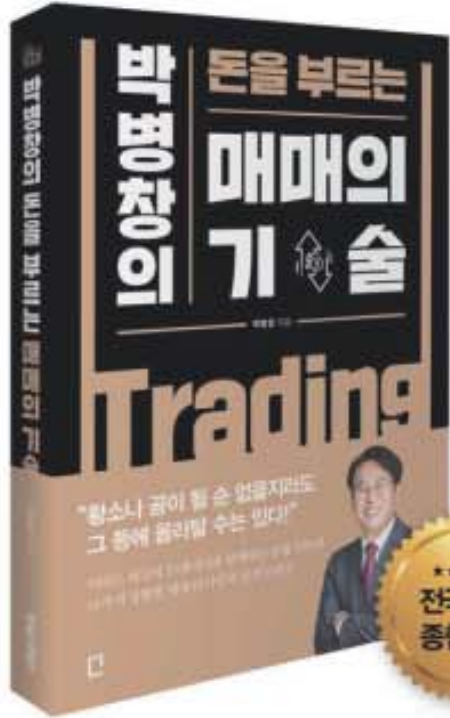


“주식은 ‘이 신호’가 보일 때 사야 합니다”

여의도 최고의 트레이더와 함께하는 승률 99%의 16가지 상황별 매매 타이밍과 실전 노하우! 전국서점 종합 1위!



박병창 지음 | 18,000원 | 포레스트북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겪은 작년 시장, ‘주가 폭락’,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걸 알았으면 전 재산 올인해서라도 돈 벌었지.” 그때 당시, 매수 신호가 있었나?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은 그 매수 신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언제까지 주식 초보 책만 보면서 공부만 하고 있을 건가요? 많이 내렸으니 사고, 많이 올랐으니 판다? 그게 될까요? 기준과 원칙 없는 투자는 손실만 키울 뿐입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싸게 샀더라도 그보다 더 싸게 판다면 손

실이고, 애초에 비싸게 샀다면 더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이런 시장을 이기려는 거예요. 절대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순 없습니다.

시장은 황소와 곰의 싸움터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누가 황소이고 누가 곰인지를 파악하고, 어느 쪽이 이기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쪽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주체의 힘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3가지 방법

작년에 저점으로 샀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사후적으로 그런 거죠, 지나서는 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①90도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②45도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수익의 속도, 매수수량 등 이런 부분에서 90도로 빠진 종목과 45도로 빠진 종목,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속도’입니다. 이 속도의 개념으로 내가 이 주식을 얼마나 살 건지,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 보유 기간은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매수매도 타이밍 등이 달라집니다. 왜 속도가 빠르면 빠르게 올라오고 수익률이 높을까요? 빠르게 빠지면 매수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주식은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매매 타이밍을 판단하는 데 6가지 핵심 요소인 시간, 가격, 거래량, 움직임과 멈춤, 속도를 바탕으로 매수 3원칙과 매도 2원칙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6가지 상황별 트레이딩 스킴을 정리했고요, 이를 익히면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습

니다.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강세 종목이든 약세 종목이든, 장기 투자든 단기 거래든 확신을 갖고 대응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승자가 되려면 승자의 어깨에 올라타세요!”

문의 070-4233-7559
※ 책은 서점에서 구매하세요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익혀두면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매매 원칙을 몸에 익혀두면 평생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 대우증권과 교보증권에서 오랫동안 자점장으로 근무했으며, 시스템 트레이딩인 MP4와 지능형 HTS를 개발하는 등 주식시장의 최일선에서 트레이더로 살아온 증권 업계의 신동인. 특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하면서 고수를 가르치는 고수로 불린다.

라이프 플랫폼 시대, ‘돈 버는 기업’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들의 이야기

‘네카쿠베’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의 앞 글자를 딴 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플랫폼 기업들을 의미한다. IT기술을 기반으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있는 이들은 지금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 이들이 보여주는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네카쿠베 경제학’은 ‘네카쿠베’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여러 라이프 플랫폼 기업들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짚어보는 책이다.

시대가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시장이 바뀐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퍼가 일상이 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가 몰려다. 신선식품, 배달음식, 가구, 가전제품, 신발, 의류 등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을 통해 받는 게 일상이 되었다.

시대가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는 법이다. 20여 년간 물류 현장을 취재해온 저자는 바뀐 시장에서 ‘돈 버는 기업’들은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찾았는지, 이커머스 기업들이 왜 물류에 주목하는지 등 생활 속 물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생활 속 물류가 혁신의 기회가 된다! 물류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오늘의집에 입점한 후 매출이 수직 상승한 기업 이야기, 가구매장에 TV 등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이유, 오늘 먹을 해산물의 산지직송 서비스, 무료 배송에 이은 무료 반품 서비스까지 선보이는 기업의 행보부터 일주일치 택배를 한 요일에 모아 보내는 서비스, 플라스틱 대신 캔에 담은 커피, 택배박스 대신 자체 재활용 박스 활용 등 친환경 배송을 고민하는 기업, 물류센터를 무인화하는 기업, 택배차량 외에 운송 방식을 고민하는 기업 등 ‘네카쿠베 경제학’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들의 이야기가 통성하게 실려 있다. 라이프 플랫폼의 시대가 열리며 디지털과 물류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이 손을 잡는 이유,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 진짜 이유 등 ‘돈 버는 기업’들이 라이프 플랫폼을 차지하려고 혈전을 벌이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네카쿠베 경제학’이 답을 가르쳐줄 것이다.

문의 02-2668-5855
※ 책은 서점에서 구매하세요



김철민 지음 | 16,000원 | 페이지북스

“더 부자가 되거나, 더 가난해지거나 양극화의 가속도가 무섭게 불기 시작했다!”

“미스터 마켓이 또 어떤 번덕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 답답하고 불안하다면, 걱정하지 말고 이 책을 선택하라. 이효석 팀장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엠블리’ 임승환



이효석 애널리스트. 올해 초 경제 유튜브(쇼프로TV)에 출연한 그는 생존을 위해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갈박함에 깊은 공감을 쏟아내며 그동안 살아온 투자 인사이트를 진심을 다해 전했고, 이 방송을 본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가슴을 울리는 명강의”, “두 번 세 번 봐야 하는 레전드 강의”라는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투자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세상, 벼랑 끝에 내몰린 초보투자자를 위한 생존 투자법”
코로나19는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바꿔버렸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예적금 금리는 1%대로 떨어졌다. 아파트값은 하루아침에 1~2억이 오르는데, 알뜰살뜰 모으기만 해서는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세상, 이제 주식은 한 푼을 더 벌어보려는 투자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이 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양극화의 가속화다. 코로나19는 10명 중 2명을 더욱 부자로 만들었으나 나머지 8명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만약 당

신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경제의 ‘경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현 SK증권 자산전략팀의 이효석 팀장은 이렇게 말한다. “부자를 안 하는 것이 0이라면, 부자를 하는 것은 단순히 1이 아닙니다. 투자의 세계는 1에서 100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100까지 향하려면, 반드시 문턱을 넘어 0에서 1로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투자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빨리 아셔야 합니다.”

“지금 1주부터 시작합시다!” 140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울린 명강의

주식투자는 양극화 시대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다. 이 무기를 가지려면, 그리고 제대로 써먹으려면, 완전히 바뀐 투자 환경을 이해해야 하고, 주식을 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효석 팀장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에서 실전으로 부딪혔던 투자 전문가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

작했으면 좋겠습니다.”에서 그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히 설명해준다. 그리고 끈기롭다는 조언이 아닌 명징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 그 어떤 보고서보다 명확한 ‘생존 투자’의 전략을 아낌없이 들려준다. 투자자가 기초체력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 통화량의 증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마이너스 금리는 무엇인지, 초보자들이 궁금해할 구석구석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브랜드 가치 등 ‘무형자산’의 효용성을 계산하는 법,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인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법, 새로운 가치평가의 기준(리얼 옵션) 등 금융전문가들도 참고하는 귀한 자료들을 모두 공개했다.

“더 부자가 되거나 더 가난해지거나!” 많은 전문가가 “양극화에 무섭도록 강력한 가속도가 불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K의 경제라는 용어가 생기고,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를 건어차였다’는 말이 들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다. 계층 간의 이동이 더욱 불가능한 세상에

이미 와 있는 지금, 이효석 팀장이 진심으로 전하는 이 책의 메시지가 부의 양극화 갈림길에 선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문의 070-7725-5890
※ 책은 서점에서 구매하세요



이효석 지음 | 17,000원 | 페이지북스